



# 샘보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되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크신 일들을  
깊이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시편 77편 12절

주후. 2017년 11월 22일 창간

매듭달: 12월의 순우리말

## 샘보는 바른 소통의 길잡이입니다.

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학교에 대해  
샘물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2017년 창간되었습니다.



샘보는 현재 11학년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쉽게도 내년이 오면 저희는 더 이상 샘보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2020년의 샘보를 이끌어갈 기사를 찾습니다.  
꼭 거창한 능력이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샘보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갈고 닦아온 샘보의 이야기를 이어나가 주세요.

# 샘물의 듬직한 서포터, 김동규 셰프님

샘물중고등학교에는 선생님들 이외에도 학생들을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 샘보는 그 분들 중 매일같이 학생들의 즐거운 식사시간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동규 셰프님을 인터뷰해 보았다.



Q1. 샘물에서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A1. 저는 2010년 샘물학교가 판교에 있을 때 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Q2.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A2. 일과는 항상 기도로 시작해요. (웃음) 아침에 일어나 집에서, 학교로 와서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도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요. 지휘자의 지휘대로 움직이는 오케스트라처럼,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Q3. 학생들이 셰프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데, 어떤 호칭이 가장 좋으신가요?  
A3. 학생들이 불러주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로님, 집사님, 선생님, 셰프님 등으로 불러주는데 가장 재미있었던 호칭은 '아버님' 이었던 것 같아요. (웃음) 저는 학생들이 어떤 호칭으로 부르던지 다 좋아요. 학생들이 저를 부르면서 보는 맑은 눈빛을 보면 항상 힘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Q4.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A4. 아무래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식사를 책임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Q5.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A5. 항상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개발한 음식이 아이들의 입맛에 맞을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표현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많거든요.

Q6. 일하는 도중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6. 한 학생이 배식을 받다가 급식판을 엮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자신이 엮은 것도 아닌데 다 같이 치우는 것을 도와주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고 감동받았던 적이 있어요.

Q7. 학생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점이 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7. 요리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양한 재료의 이치를 깨달아 가는 것 뿐, 진정한 최고의 요리사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양한 재료를 맛보고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다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기!

Q8. 기도제목이 있으신가요?  
A8. 이 일을 하면서 항상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사기도와 더불어 제가 학생들의 입맛을 잘 이해하고 요리로 표현해 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셰프님의 학교에 대한 사랑과 학생들을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샘물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섬김을 되새겨보고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길 바란다.  
박소연 기자

## 12학년이 전해온 이야기

6년간 샘물을 다닌 12학년 선배들이 샘물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후배들이 샘물에서의 남은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샘보에게 전해왔습니다.

"사실 중학생 친구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줘야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소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을 몇 가지 해주려고 해요.

우선 성적에 관해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건 당연하지만 지키기 힘든 '학교 수업 열심히 듣기' 에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부족한 것을 추가로 학습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우선해서 학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 자소서를 쓰면서 동아리나 프로젝트 같은 학교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신문동아리를 하면서 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볼 수 있었고, 수행 프로젝트를 통해 조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막상 할 때에는 시간 낭비 같고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자신에게 좋은 자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중간 중간 보는 모의고사에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등급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야 마지막 수능까지 주님 앞에서 굳게 서있을 수 있어요.

특히 고3이 되면 일반 학교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워지지만, 샘물학교에 다니는 우리에게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아침 복상전이나 점심 먹기 전 4층 강당에서 하는 기도와 친구들끼리 기도제목을 나누는 등의 꾸준한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샘물에 온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요. 좋은 대학에 가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학교생활, 좋은 동역자와 같은 것을 위해 샘물에 왔다는 것을 꼭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수험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매일의 일상이 그저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것들이 모여서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예요. 별 거 아닌 하루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보내려 노력하는 샘물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항상 샘물학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할게요. 화이팅!"

12학년 양지혜, 박희은

# 새로운 선생님들께 샘물은 어떤 의미일까?

가을학기를 맞아 학교에 오니 새로운 선생님들의 얼굴이 보인다.

매일같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지겨운 이 학교를 새로운 모험의 장으로 삼아 발걸음을 내딛으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샘보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인터뷰이: 달쌤 (문영준/성경), 로아쌤 (이진명/사회), 든든쌤(장우영/통합지원)

## Q1. 어떻게 샘물에 오게 되셨나요?

달쌤 : 우연히 학교 교직원 모집공고를 보고 학교 홈페이지를 구경하는데 학교의 교육철학이 너무 멋지고 이상적이라 이 학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오게 되었습니다.

로아쌤 : 샘물에 오게 된 과정은 너무나 스펙터클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용인은 전혀 연고가 없는 땅이었지만, 매우 긴박하고도 정확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빅픽처를 더 뚜렷이 보게 되겠죠? (웃음)

든든쌤 : 작년 통합지원 친구들과 움직임 수업(특수체육)을 하면서 샘물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말랑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어서 제가 여름부터 통합지원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 Q2. (샘물에 오시기 전에 다른 학교에 계셨다면) 일반 학생들과 샘물 학생들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달쌤 : 저는 샘물에 오기 전 교회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를 3년, 청년부를 6년 정도 지도했는데, 그렇다 보니 사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샘물은 학교임에도 교회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로아쌤 : 첫째, 매일 복상하며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아이들이라는 점입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맡겨진 학업과 관계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둘째, 미디어의 노예가 아니라 절제함으로 분별하며 미디어를 활용하는 지혜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시간, 열정, 건강, 관계, 비전을 미디어에 바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샘물 학생들은 귀한 훈련을 감당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셋째, 또래와 어울리기 위해, 정제되지 않은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샘물 학생들은 쓰는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아직 과도기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선생님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니 너무 기쁩니다.

든든쌤 : 저는 샘물이 첫 학교입니다. 제가 아는 다른 학교 학생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샘물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친구의 어려움을 잘 캐치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돕는 일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 Q3. 샘물만의 좋은 점이나 색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달쌤 :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지도하고, 매주 정해진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학부모와 함께 예배하고... 신앙을 훈련시켜 경건한 주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샘물만의 좋은 점이자 색다른 점이라 생각합니다.

로아쌤 : 샘물의 수많은 장점 중 3가지만 꼽자면,

첫째, 공동체 예배입니다. 목요일 7교시에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영적으로 함께 소생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둘째, 샘물공동체의 지혜로운 훈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 위에 교육을 세우니, 선생님들의 마음의 방향이 일치하게 되고, 선생님들께서 일관된 훈육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생들의 관계 속에서 샘물만의 특별함을 느낍니다.

셋째, 실력 뿐 아니라 인격과 성품 또한 아름답고 멋진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한명 한명을 붙잡아 상담하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을 느껴 몽클 할 때가 많습니다.

든든쌤 : 샘물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샘물의 자랑! 통합지원팀(학생들)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밝게 자라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 Q4. 샘물에 온 소감, 각오 또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달쌤 : 건강하고 이상적인 공동체, 훌륭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삶의 현장, 학교생활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확장시켜가는 섬기는 예수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아쌤 : 샘물공동체와의 만남은 제게 큰 유익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지 함께 기대하며, 더디고 부족한 성장일지라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서로를 기다려주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사.사랑합니다!

든든쌤 : 오늘도 더 낮은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샘물과 함께 하게 된 모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유빈 기자

# 더 안전한 샘물을 위하여...

-지난 소방벨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

12월 2일, 샘물중고등학교에 화재 비상벨이 울렸다. 그 즉시 선생님들은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대피하였고, 실제 상황이 아님을 확인한 후 학생들과 함께 교실로 복귀하였다. 실제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 샘물이 되돌아 봐야 할 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 한다.

### 1. 화재 발생 후 대피에 관하여

비상벨이 울리고 학생들이 모두 운동장으로 대피하기는 하였지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학교에서 정해진 교실별 대피 경로를 지키는 학생은 거의 없었으며, 중앙 계단으로 많은 학생이 몰리는 바람에 대피가 지체되기도 하였다.

### 2. 학교 안전 시설물에 대하여

학교에 있는 안전 시설물은 언제든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여야만 한다. 하지만 소화전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와 학생들이 비상계단 문을 장난으로 잠그는 등의 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52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 3. 화재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의 인식

화재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방 벨이 예고 없이 울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소방훈련이나 비상벨 점검과 같은 이유로 울리는 비상벨은 교회와 학교간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전 통보가 가능한 일이고, 또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음량이 임의로 조정되거나 울림이 반복되는 무의미한 비상벨은 학생들에게 비상벨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화재나 비상벨에 대해 더욱더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화재를 대하는 개인의 태도가 재산과 본인의 생명을 넘어 주변인의 안전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은 안전에 대해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헤프닝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그저 단순한 헤프닝이 아닌 샘물의 현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로 바라보고 부족한 점을 고쳐 나간다면 샘물은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지호 기자



# 샘보가 선정한 2019 샘물이슈 Top 5



많은 변화와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2019년!  
샘보가 2019년 샘물의 이슈들을 5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 1. 공동체 예배의 변화

목요일 아침 복상시간에 있던 예배가 7교시로 늦춰지면서 찬양예배, 외부 목사님의 초청 강의 등 기존의 설교형식 공동체 예배가 색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길찾기 기도회'에서의 선생님의 간증, '친구에게 길을 묻다'에서의 학생들의 간증 등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을 위한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 2. 샘물, 함께 뛰다

-올해 처음으로 풀뿌리가 개최한 국토순례 조별 스포츠 대항전으로, 여학생은 피구, 남학생은 축구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승부욕이 불타오르기도 했지만, 국토순례 때 서먹했던 친구와도 게임을 통해 끈끈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3. 샘물 선생님들의 결혼과 출산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축복 안에서 일어난 선생님들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하루쌤 결혼, 하꿈쌤&푸들쌤 결혼, 하늘쌤 결혼, 하나쌤, 하울쌤 결혼 예정  
/ 풍당쌤 아들 출산, 단비쌤 아들 출산, 말랑쌤&든든쌤 아들 출산, 사공쌤 아들 출산

## 4. 봄 컨퍼런스 독감 유행

-고등학교 봄 컨퍼런스에서 퍼진 독감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컨퍼런스 이후 일주일간 교실에 빈자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 5. 국토순례 시즌 2 시작

-남쪽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국토순례 시즌1이 작년에 마무리되었고, 올해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즌2도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글: 샘보 편집부

# 2020년 샘보 기자를 모집합니다!

표지에 그려진 일러스트에는 샘보의 방향성과 가치가 담겨있습니다. 종이컵전화기는 신문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학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종이컵전화기는 돈을 내지 않아도 상대방만 있다면 소통이 가능합니다. 표지 일러스트에 그려진 종이컵전화기의 상대방은 샘보의 신문으로, 여러분들이 신문 앞에 찾아오기만 한다면 샘보와 학생 여러분의 소통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종이컵전화기의 발신자가 될 샘보의 기자를 모집합니다.

-샘보에서의 기사작성과 인터뷰, 신문편집 등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또는 생기부에 조금 더 의미있는 동아리 활동 내용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